

발 간 사

대한감염학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학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대한감염학회 4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불혹의 나이에 이르렀으며, 이는 주변의 환경에 흔들림 없이 온전한 자기성장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만 하여도 항생제와 백신의 출현으로 전염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감염 전문가의 입지나 감염학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중휘, 정희영 두분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원로분들의 혜안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염학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내성균의 등장, 병원감염의 중요성, AIDS 같은 새로운 감염질환의 등장, 탄저병 같은 생물학 테러 등 현재 시대상황은 그러한 결정의 주요성을 더욱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학회 발전상을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명동 성모병원의 조그만 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래도 참가인원이 적어 임상실습을 하던 학생까지 동원하기도 하던 것이 근래와서는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로 발전하였으며, 1년에 1회 발간하기도 어렵던 학회지가 현재는 격월로 발간되어 매년 80~100편의 논문이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은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간 독립된 사무실이나 사무원 없이 학회가 운영되다 보니 학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들이 부실하여 본 40년사의 내용에 어느 정도 오류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자체 사무실과 사무원을 두게되어 학회의 중요한 기록 보존과 여러 회원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일 본 40년사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충언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책이 학회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40년사 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신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염학회 간행물의 발간을 담당해온 광문출판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1월

대한감염학회 회장 **강 문 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 학회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학술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한참 어려웠던 1961년 11월에 어려움을 딛고 창립하였고 이후 40년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시대상과 이에 따른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였던 발족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대한감염학회의 창립은 의학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염학회는 지금의 대한의학회의 전신인 분과학회협의회의 발족에도 크게 공헌하였으며 당시 전종휘 감염학회 회장님이 대한의학회의 3~5대 회장을 역임하신 것을 보아도 그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학회는 해마다 학술대회를 통하여 특정 감염병에 대한 집중적 연구발표와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염병에 대한 지견이 종합정리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196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기관지인 「감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감염학회는 그동안 국가 방역사업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써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감염학 학술단체와도 적극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감염학회는 회원중 대학에 봉직하는 39명의 교수들이 2년 6개월에 걸친 작업을 거쳐 650여쪽의 「항생제의 길잡이」라는 명저를 출간하여 학계에 즐거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1983년 초판을 발간한 정희영 교수님의 「항생제의 길잡이」를 17년후에 같은 분야의 후학들이 힘을 모아 집대성하여 개정판으로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감염학회의 선후배간의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 의학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염학회 회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셨다니 축하드리고 앞으로 대한 감염학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더욱 훌륭한 학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대한의학회 회장 **지 제 근**

